

광주 금호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104분 연장 승부차기까지
수원 매탄고 5-3 제압
4년 연속 전국대회 제패
주장 조성권 최우수선수
허을 득점상 신승훈 GK상



광주FC U-18 금호고가 지난 2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에서 수원 매탄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U-18 금호고가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올 시즌 첫 전국대회 우승이자 4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 쾌거다.

금호고는 지난 2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수원 유스팀인 매탄고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104분의 혈투 끝에 얻은 값진 승리다. 금호고는 U17 챔피언십에서도 4강까지 오르면서 고교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다.

K리그 프로 산하 18세 이하 클럽 2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금호고는 A조 1위(2승1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안양공고에 8-0, 서울이랜드 FCU-18에 3-0으로 승리했고 수원 FCU-18과는 0-0으로 비겼다.

금호고는 16강에서 경남진주고에 2-1, 8강에서 울산현대에고에 3-2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 4강전 포항제철고와의 경기에서는 허을(3년)이 전반 3분과 14분 연속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견인했다.

결승은 치열했다. 수원 매탄고와 전후반 80분과 연장전 20분의 혈투에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전반 초반 매탄고에 주도권을 내주는 듯했던 금호고는 전반 후반 이후부터 조직력이 살아났다. 하지만 허을, 송주민(3년) 등의 슈팅이 번번이 빔나갔다. 후

반 종료 직전 송주민의 절묘한 프리킥도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연장전에서는 양팀 골키퍼들의 활약에 0-0 팽팽한 승부가 깨지지 않았다. 연장 전반 5분 송주민의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신승훈(2년)이 매탄고의 결정적 슈팅을 막아냈다.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승부차기에서 가려졌다. U-17 국가대표 수문장인

금호고 신승훈의 선방이 빛난 승부차기였다.

금호고 첫 번째 키커 엄지훈(3년)이 먼저 매탄고 골키퍼를 완벽히 속이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골키퍼 신승훈이 매탄고의 첫 번째 키커 조용준의 골을 막아냈다.

이후 금호고는 김선호(3년), 송주민, 김화중(2년)이 잇따라 득점에 성공했고, 마지막 키커 명건욱(2년)의 슈팅이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금호고는 지금까지 6번의 승부차기 6연패에서도 탈출했다. 금호고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4강에서 승부차기로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도 2월 백운기교축구 4강에서 안양공고에 승부차기 3-5패, 4월 대한축구협회장배고교 축구 8강에서 전주영생고에 승부차기 3-4로 패하는 등 최근 승부차기 6경기에서 모두 패했으나 이날 승리로 승부차기 징크스에서도 벗어났다.

주장 조성권(3년)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으며 허을은 득점상(7골), 송주민은 공격상, 김흥은(2년)은 수비상, 신승훈은 GK상을 받았다. 엄지성(2년)은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을 차지했다.

최수용 금호고 감독은 “이 대회는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출전할 때마다 육신을 넣던 대회”라며 “8강 울산현대에고, 4강 포항제철고전도 모두 결승이라 생각했고, 결승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 우승을 계기로 선수들이 축구선수로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감독은 “현재 진행중인 주말리그, 그리고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유스인 광양제철고는 U17 챔피언십 결승에서 개성고에 1-2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KBO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BO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 순서는 2018년 팀순위와 역순인 NC-KT-LG-롯데-삼성-KIA-키움-한화-두산-SK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794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76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078명이다. 이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야구팬들의 관람도 가능하다. 입장권은 21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180명, 1인 2매)으로 신청 가능하다. 입장권 배포는 행사 당일 오후 12시부터 로비 배포 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행사장 입장 시간은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된다.

KBO는 선착순 입장권 신청을 놓친 야구팬들을 위해 21~22일 KBO 공식 인스타그램(@kbo.official)을 통해 ‘신인 드래프트 함께 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 함께 가고 싶은 가족 또는 친구 등을 댓글(태그)로 소환하는 이벤트로 참여한 야구팬 중 20명을 선정해 입장권(1인 2매)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KBO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된다.

2020 KBO 신인 드래프트는 케이블 스포츠 채널 SPOTV2와 MBC SPORTS+,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되며,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김현섭 대구육상 20km 경보 ‘동’ 러시아 선수 도핑적발 순위 정정



한국 경보의 간판 김현섭(34·삼성전자) ‘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 메달리스트 중 러시아의 스타니스라프 에펠야노프(기존 3위)를 도핑 위반으로 적발했다. 4위였던 김현섭이 동메달 수여 대상자가 된다’라고 알렸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지난 20일 대한육상연맹에 공문을 보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 메달리스트 중 러시아의 스타니스라프 에펠야노프(기존 3위)를 도핑 위반으로 적발했다. 4위였던 김현섭이 동메달 수여 대상자가 된다”라고 알렸다.

IAAF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 경기 결과에서 김현섭의 순위를 3위로 정정했다.

IAAF는 9월 2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하는 2019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메달 수여식도 열 계획이다.

한국 경보의 간판 김현섭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 결선에서 1시간 21분 17초로 6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남자 경보 20k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발레리 보르진과 블라디미르 카나킨(이상 러시아)은 2016년 실시한 과거 샘플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IAAF는 2016년 3월 김현섭의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순위를 4위로 정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에펠야노프의 도핑 규정 위반을 확정했고, 김현섭의 순위는 3위로 더 올라갔다. /연합뉴스

“이쉽군...”

이덕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ATP 투어 윈스턴세일럼 오픈 대회 단식 복선 2회전에서 세계 랭킹 41위의 강호 후베르트 후르카치(폴란드)의 공을 받아치고 있다. 이덕희는 1-2로 역전패했다. /AP연합뉴스

광주FC ‘성적·관중’ 모두 잡았다

13~24R 평균 4,385명·1차 대비 1,591명 증가
구단 최초 풀 스타디움·플러스 스타디움 수상

광주FC가 풀 스타디움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수상했다.

21일 광주FC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원큐 K리그 2019 13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의 관중 유치 성적과

마케팅 성과를 평가한 결과, 풀 스타디움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에 광주를 선정했다.

광주는 기간내 최다 유료관중을 유치한 구단에게 주어지는 풀 스타디움상을

포함해 가장 높은 관중 성장세를 기록, 플러스 스타디움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는 13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 치러진 4번의 홈경기에서 총 1만7,583명의 관중(평균 4,38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차(1~12R) 기간 대비 평균 1,591명의 관중이 증가한 수치다.

리그 득점 1위(16골) 펠리페를 필두로 완벽한 밸런스 축구를 선보이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는 이로써 성적과 팬심을 모두 사로잡은 구단으로 거듭나게 됐다.

기영욱 광주FC 단장은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의 사랑은 광주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목표를 향해 구단과 시민들이 하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라운드에서 열정과 끈기로 치러진 4번의 승격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2 맨프렌들리상에 서울이랜드를, K리그1에서는 FC서울(풀 스타디움·플러스 스타디움상)과 대구FC(맨프렌들리상)를 각각 선정했다. /최진화 기자

벤투호 내달 조지아와 평가전 투르크멘 대비...2일 터키출국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9월 10일)에 대비해 조지아와 원정 평가전을 준비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조지아와 현지시간으로 9월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평가전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며 “계약은 마무리 단계다. 이번 평가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FIFA 랭킹 37위인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레바논(87위), 북한(118위), 투르크메니스탄(132위), 스리랑카(200위)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9월 5일 일제히 시작되는데 한국의 1차전은 9월 10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경기가 없는 9월 5일에 평가전을 추진했다.

축구협회는 애초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조 추첨 1번 포트에 포함된 나라들 가운데 9월 5일 경기가 없는 아시아 국가들과 접촉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축구협회는 유럽팀으로 시선을 돌렸고, 조지아와 평가전을 준비하게 됐다.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 D조에 속한 조지아는 한국시간으로 9월 9일 조별리그 5차전을 앞두고 있어 평가전 상대가 필요했다.

평가전 계약이 마무리되면 파울루 벤투 감독 취임 이후 태극전사들은 처음으로 유럽팀과 상대하게 된다.

대표팀은 9월 2일 터키 이스탄불로 출국해 5일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한 뒤 10일 결선을 치른다. /연합뉴스

캐나다 여자오픈 박성현·쥘타누간·톰프슨 동반 플레이

12세 9개월 류 최연소 출전

대회 조직위원회가 21일(한국시간) 발표한 1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박성현(26)과 에이라 쥘타누간(태국), 렉시 톰프슨(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금 225만달러) 1라운드를 같은 조에서 치른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21일(한국시간) 발표한 1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박성현과 쥘타누간, 톰프슨은 23일 오전 2시 25분(한국시간) 10번 홀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한다.

올해 LPGA 투어 CP 여자오픈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마그나골프클럽(파71·6,675야드)에서 22일부터 나흘간 펼쳐진다.

박성현은 2017년, 쥘타누간은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다.

지난해 챔피언인 홈 코스의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22일 밤 8시 59분에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이민지(호주)와 함께 1번 홀을 출발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12세 9개월인 아마추어 미셸 류(캐나다)가 출전한다. 2006년생인 류는 이 대회 47년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우승자 헨더슨이 2012년에 14세 나이로 출전한 것이었다.

류는 지난날 캐나다 아마추어선수권 대회에서 공동 12위를 차지해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연합뉴스